

'87 사업추진 실적보고

본회는 1987년도 중점사업으로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위시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강구 생산조절 및 가격안정대책, 닭 경제능력검정사업, 월간양계지 및 양계속보 발간사업, 정책연구개발 등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요약해 본다.

1. 소비촉진 홍보사업

계란 및 닭고기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본회 임원, 유관단체, 업체, 회원들로부터 1억4천8백여만원의 홍보사업비를 협찬받아 월간여성잡지 및 신문, TV, 라디오 등에 연24회에 걸쳐 계란 및 닭고기의 우수성과 국민건강 필수 식품임을 홍보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닭고기 전문음식점에 게시하였다.

또한 닭고기의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보급코자 제3회 전국닭고기 요리솜씨대회를 생동감 있게 진행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었으며, 전국순회요리강습회 및 시식회를 연11회 개최하였고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외국의 유명한 오프렛 요리강사를 초청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오프렛 요리강습회도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크게 거두었다.

장차 주부가 될 여자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학생들에

게 계란과 닭고기의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간편한 요리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10개 여자고등학교 및 전문대생 8,963명을 대상으로 강의 및 요리실습을 지원하였으며,

요리책자와 팜프렛 202,000부와 소비홍보용 가계부 5,000부를 제작 전국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양계산물 소비홍보 아이디어 현상공모 및 계란, 닭고기와 관련된 작문현상공모를 한 바 많은 작문이 응모되어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소비홍보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다.

2. 유통(구조)개선사업

양계업의 계열화 생산추진으로 양계산업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85~86년도에 이어 87년도에는 2개 업체를 선정 5억원의 자금을 주선하였다.

3. 생산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자율적인 생산조절로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계란 및 육계의 전망을 매월 분석하여 월간양계지 및 분과위원회에 발표하였고,

양계산물 소비수요 및 육용계 생산잠재력을 추정발표하였으며 생산비도 조사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육계가격이 생산비에 크게 민도는 가격으로 거래됨에 따라 육계가격을 안

정시키고자 연9회에 걸쳐 순회 좌담회와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은 하였으나, 성수기에 폭우 장마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노사분규 등 예기치 않은 사회여건과 생산과잉 등으로 성과를 뜻대로 거두지 못했다.

4. 생산성 향상

채란계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부각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생산성 제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좌담회 및 세미나를 연3회 개최하였고,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추백리를 퇴치하기 위하여 85년부터 추백리진단액 공급장구를 본회로 일원화하고 추백리검색을 실시토록 계도하는데 노력하였다.

5. 증계검정 및 부화업자 교육실시

닭의 자질개량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케하고 양계농가의 병아리선택의 지침을 제시코자 산란계검정 연3군 7,272수, 육용계검정 연3군 10,580수를 실시하였으며, 검정이 완료된 5군에 대하여는 그 성적을 월간양계지에 공표하였다.

7. 초생추 감별사 양성

감별사 수급에 원할을 기하고 감별사의 기술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을 2회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도 1회 개최하였다.

8. 발간사업

월간양계지를 매월 발간하여 전회원, 유관기관, 전국 시도군청 및 농촌지도소, 지역축협, 농고, 농진, 농과대학까지 무료로 배부하여 최신 국내의 산업정보를 신속히 소개하고 정책제안자로서 또한 양계인 권익보호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다.

'88카렌다 다이어리 2,000부를 제작하여 전회원 및 유관기관, 단체업계에 배부하였다.

9. 방역대책사업

86년도에 이어 87년도에도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8개농장 39만4천수를 대상으로 계군혈청검사를 실시, 질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도록 하였다.

10. 정책연구개발

수입초생추 검역관리요령(검역시행장지정) 개정시행에 따른 시정건의(87.4.13, 7.20, 7.22)- 농림수산부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에 의한 초생추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이 현역전하에서는 동시설기준에 의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3차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건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닭고기 통조림 등 축산가공식품 수입개방에 따른 건의(87.6.26)- 농림 수산부

87.7.1 부터 닭고기통조림 등 축산가공식품이 수입개방되기에 따라 아직 국내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에 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합사료 수입원료의 관세면세 곡물쿼터제 및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폐지, 배합사료원료 수입개방, 국산사료곡물의 이중곡가제를 실시 하므로써 배합사료 생산비를 절감시켜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인하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닭고기, 계란을 감시품목으로 지정운영함은 물론 계사시설 근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처리, 가공, 판매과정의 불합리한 세제도 개선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88예산에 일부 반영하였으며 계란수입은 88.12월까지 감시품목으로 상공부에서 재고시 하였다.

축사(계사)표준설계도 변경건의('87.7.24)-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에

1980년도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축산진흥회(당시)가 공동제작 보급한 축사 표준설계도는 현재 양계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실용성이 없으므로 현실성 있는 축사의 표준 설계도의 작성보급으로 양계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육규모별, 사육단계별 계사표준설계도를 작성 보급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건의 88년도 축협중앙회 예산에 반영하였다.

육계 긴급 수매건의(87.8.11)-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에

금년 8월 초순부터 육계가격이 경영비(kg당 745원)

에 크게 민도는 가격으로 폭락함에 따라 경영비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 및 축협중앙회에 건의한 바 이를 받아들여 수매비축하였다.

위생란 및 위생계란 상표등록출원 시정

87.8.13 한국냉장(주)이 위생란 및 위생계란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한데 대하여 본회에서는 전국 산란계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즉각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 위생계란이라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축산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과 자조금제도 실시 건의(87.11.13)- 농림수산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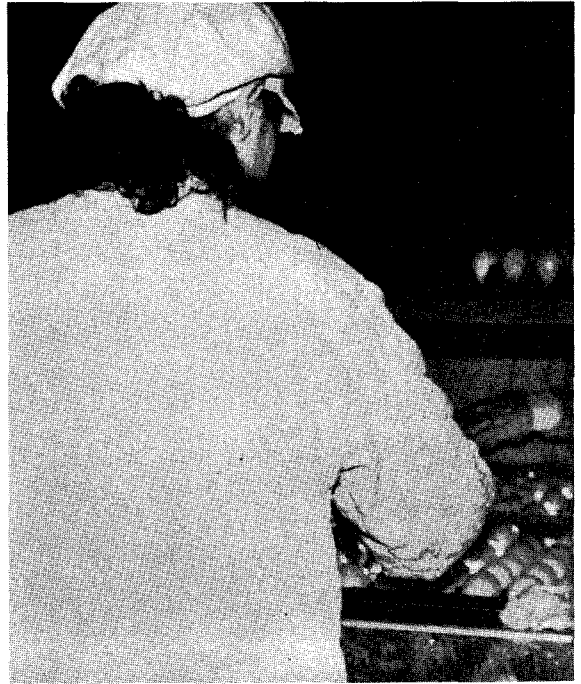
전국 150만 양축농민의 생업유지 및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과 축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여 줄 것을 축산생산자 4개단체 공동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선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업중에 있다.

양계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한 시책건의(87.12.1)- 농림수산부에

87년 1월과 7월에 일부 양계산물 수입이 개방되었고 육계와 산란계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여 생산농가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람고 닭고기의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양계산물이 전면 개방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가금협회와 공동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한 한국양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심포지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향후 정부 시책에 참고하여 관련부처 및 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산 옥수수의 사료화에 대한 건의(87.11.30)- 농림수산부, 사료협회에

국산옥수수를 배합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약 135억 원을 양축농가들 추가부담하게 되어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니 영세한 양축농가를 보호키 위하여 국산옥수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용 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국제적 제반여건 및 국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축산업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옥수수 등 국내산 곡물이 사료이용은 필요한 실정임



을 양해해달라는 회신을 받았다.

산란계 및 육계 세율분리 및 소득표준을 인하건의

86년까지 양계업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소득표준율을 산란계 및 육계로 분리할 것과 86년도 소득표준율을 인하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국세청에 건의하고 과세분리 및 세율인하 작업을 추진, 본회 건의 내용대로 소득표준율이 산란계 및 육계로 분리되었으며, 세율은 육계에 대해서만 20% 인하(9%에서 7.2%)되었으며, 또한 87년에도 양계업계의 장기간 불황으로 산란계 및 육계 공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87년도 소득표준율을 인하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근거자료를 제시 건의하고 계속하여 인하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계육가공원료(칠면조고기 등)수입억제 및 이용증대조치

일부 가공공장에서 계육가공(쏘세지)원료로 칠면조고기를 수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즉각 해당공장을 방문 양계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수입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향후 육가공 원료수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으며, 육가공 원료로 닭고기를 다량 이용키로 하였다.

11. 조직유대강화

협회 활성화

협회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회원관리를 위하여 부실분회 5개소(연천, 인양, 청주, 충주, 부천)를 폐쇄하고 충남지부의 업무를 정지하였으며, 분회폐쇄 및 지부 업무정지에 따른 부실회원 299명을 회원에서 제외시키고 신규로 101명(본회57, 지부·분회44명)을 가입시켰으며, 연4회에 걸친 회장의 지부순회 간담회와 각종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연40회 개최하였다.

양계인 신년인사회 개최

새해 인사겸 응화단결과 협력을 다짐하기 위하여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 임원, 분과 및 전문위원·유관기관 관계관을 모시고 '87.1.8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임직원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 개최

임원(회장단, 각도지부장, 지부분과위원장 및 분회장)과 직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기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87.6.12~13일(2일간)동학사에서 임직원수련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계연수생 해외파견

84,85,86년도에 이어 4차로 일본의 근대화된 양계장의 합리적인 경영 및 난가공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하여 9명을 선발, 1년 기간으로 87.9.1일 파견하였다.

12. 신속한 정보전달

매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산물 일일시세 조사통보 및 시세변동시마다 발부하는 시세엽서를 연32

회 발부하였으며,

작년도까지 계란 및 육계 시세는 변동시마다 초생추 시세엽서 주1회, 사료관측엽서는 10일 간격으로 별도로 발부하였으나 금년도 4월부터는 이를 통합하고 업계 새 소식과 금후 전망 및 대책 등을 분석 수록한 양계속보를 매주1회(연38회) 발간하여 많은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지역의 계란고시 시세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있어 시정하라는 충고가 계속되고 있어 본건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고시코자 유관단체(계우회, 상인, 양계조합 등)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

13. 부진사업

소비홍보사업중 시청각교육용 비디오 필름을 제작하여 각 학교, 단체 등에 공급하여 소비홍보사업의 파급효과를 거양코자하였으나 제작비용이 과다하여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위생적인 계산물처리 및 상도덕 양양으로 계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도계 및 양계산물 판매업자 의식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상인들의 비협조로 실시치 못하였다.

등록(허가)종계장 및 부화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미등록 종계장 및 무허가 부화장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양계산업 정비지침에 의거 미등록(무허가) 종계부화장을 양성화 조치(당초 정비기간 87년 7월말까지였으나 87년 12월말까지 연장)관계로 실시하지 않았다.

G.P처리시설을 지원코자 지원자금까지 확보하였으나 설치 희망자가 없어 시행치 못했다.

대 리 점 모 집

천호부화장은 강원도지역 양축가에게 보다
우수한 양질의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지역에 대리점을 모집한다.

연락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 - 18
TEL 972 - 2907/8